

청소년 인성교육 목표로서의 세계태권도정신 연구*

정세구**

I. 서 론

인성교육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품과 종합적 인격을 길러주기 위한 심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정세구, 1997, p.7). 이와 같은 인성교육을 우리나라 장래를 짚어질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의 중차대한 교육적 과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나타나 있다(교육부, 1997). 또 좀더 세부적으로는 본 연구자가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개발 책임을 맡았던 제7차 초·중·고등학교 도덕과(3학년~10학년)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20개의 주요 가치·덕목을 통하여 알 수 있다(서울대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1997, pp68~6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교육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주로 학교 밖의 체육관(또는 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태권도 수련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태권도 체육관 인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체육관 자체가 공식적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에 버금가는 양적 규모를 지닌데다(약 8000여개) 실제로도 체육관 자체가 설립 목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도 인성교육의 성과가 학부모들을 통하여 단편적이거나 적지 않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수련의 인성교육적 특성 전반이나 지도 방법 등의 수단적인 면보다는 태권도 수련의 목적에 해당되는 태권도정신을 밝혀 보려고 하는 것이다. 수단에 앞서 목적을 다루는 것이 순서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고 태권도정신이 바로 태권도의 의의 및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권도정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에서 본 연구자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제공한 것은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으로 이루어졌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대한태권도협회가 1997년에 주최한 태권도정신 도출을 위한 세미나의 발표 내용이다. 그 속에서 태권도정신은 태권도수련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태권도동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태권도정신이 태권도 밖에 어느 장소에 따로 있어 수련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권도가 진정한 무도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상하는 무술로서의 가치를 되찾아야 하고 그 정신은 생과 사의 절실한 현장에서 생긴다고 하였다(이진수, 1997, p.49).

본 연구자는 상기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찬동한다. 태권도정신은 분명히 모든 태권도 동작이나 행동에서 배어 나와야 하고 그것이 태권도인의 종합적인 인격으로 완성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체육관에서 초·중학교 아동과 청소년 특히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경우 이와 같은 태권도 정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자는 앞으로 태권도수련과 동작에 직결되는 태권도정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인이 지향할 행동규범과 인성교육 목표로서의 태권도정신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은 1990년대 초에 국기원에서 편찬한 '태권도 교본'에서 태권도정신을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 행동의 바탕"이라고 정의 내린 바와 통하는 것이고(국기원, 1993, p.49), 또 태권도정신이란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정립된 태권도인의 가치관이며,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과 행동이 변했을 때 태권도정신이 형성되어 간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김병운, 2001).

이제까지 사용해 온 기존의 태권도정신도 행동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국내의 태권도 체육관에서는 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의 5대 정신을 내거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조사는 못했지만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표방하는 정신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태권도의 5대 원리(principles)로 예절(etiquette)·겸손(modesty)·인내(perseverance)·극기(self-control)·불굴(indomitable spirit)을 지적하기도 하였고(Fay Goodman, 1998, p.11), 5대 교의(tenets)로 예의(courtesy)·성실(integrity)·인내(perseverance)·극기(self-control)·불굴(indomitableness)을 설정하였다(Jennifer Lawler, 1999, p.17).

상기한 바 국기원 등에서 밝힌 태권도정신에 대한 개념정의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표방해 온 태권도정신을 참고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목표로서의 태권도정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태권도정신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세계화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따라야 할 그리고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 태권도계가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널리 공포하여야 할 '세계태권도정신'(Global Taekwondo Spirit)을 정립하여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태권도

정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키 위해서는 여러 관련 국가나 전문가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지향하여야 할 새로운 태권도 정신의 시안(試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연구의 방법이나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세계태권도정신 = 한국민족정신+세계보편윤리+공동무도정신>이다. 첫째 단계로 세계태권도정신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를 한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민족정신에서 찾으려고 하고, 둘째 단계로 세계태권도정신의 보완요소를 세계보편윤리(universal ethics)에서 발굴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태권도정신의 요소를 한국과 세계의 공동무도정신에서 찾으려 한다. 3개 요소가 융합된 것을 세계태권도정신으로 내세우려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세계태권도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3개 요소를 순서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선은 각 요소가 지닌 의미와 세계태권도정신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그러한 요소가 청소년 인성교육목표로서 어떤 의의를 지녔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태권도 인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도 밝히려 한다.

II. 한국민족정신

세계태권도정신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를 한국민족정신에서 찾으려 한다.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이기 때문이다. 한국민족정신의 요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여러 견해가 가능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인으로서 인성 함양에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풍류'(風流)와 '원융회통'(圓融會通) 그리고 '의리'(義理)와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선정하여 순서적으로 다룬다.

1. 풍류와 원융회통

풍류의 의미는 멋스럽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노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 본래의 뜻은 가무(歌舞)를 통해 신(神)과 만나고 자연을 즐기며 도의를 연마하는 것으로 9세기 경 한국의 고대 국가인 신라 최치원(崔致遠)의 낙랑비 서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즉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道)가 있다. 이를 풍류라 한다. 이는 삼교(三敎, 儒佛仙)를 포함하였으며 모든 민중과 접촉하여 이를 교화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풍류의 모체는 기원전 4세기경 한반도에 부족국가를 이루었던 고조선사회와 그후 삼국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고대신교(古代神敎)로서 동북아시아와 시베리아에 걸쳐 광범하게 신봉되었던 샤머니즘(shamanism), 즉 무교(巫敎)이다. 구체적인 종교의식

의 사례로는 1세기경 부여(夫餘)에서 12월에 영고(迎鼓)라는 제천의식을 가졌는데, 나라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거의 같은 시기에 왕호를 칭할 정도로 발전한 고구려(高句麗)에서도 동맹(東盟)이라는 제천의식이 있었고, 그보다 발전이 늦었고 고구려의 지배에 있었던 동해안에 위치한 동예(東濊)에서도 무천(舞天)이라는 추수감사제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巫)의 종교 행사에서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노래부르고 춤추는 전통은 삼국시대 신라의 화랑도(花郎道)로 연결되었고 화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류정신을 알아야만 한다(김범부, 1986, p4). 화랑도의 경우에는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을 추어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비는 종교행사를 벌였고 일조유사시에는 평상시에 연마한 무술로 국가를 위한 전열에 가담하였다.

풍류와 함께 본 연구에서 민족정신의 또 다른 원류로 지적하는 원융회통에서 '원융'은 원만하게 녹아서, '회통' 즉 만나서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원융회통정신의 대표적 인물로는 한국불교의 원융회통적 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7세기경 신라의 원효(元曉)와 11~12세기경 고려의 의천(義天)과 지눌(知訥)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효는 당시의 불교는 여러 종류의 이론이 분분하여 나는 옳고 남을 그르다고 하고 나의 학설은 옳고 남의 학설은 틀린다고 하며 학설간의 쟁론이 바다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러한 쟁론을 화합시키는 화쟁(和靜)의 길이 '하나의 마음'(一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다. 원래 불교의 설교는 '깨침'의 영역이고, 모든 다른 불교의 종파도 그 근원은 하나인 만큼,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천은 고려왕자의 신분으로 출가하여 송나라에 가서 유학하고 귀국 후 당시 교종(敎宗)과 선종(禪宗)이 대립하고 있는 불교계를 혁신하려고 하였다. 교종은 외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 불경 연구를 중시하였고, 선종은 밖의 대상보다는 내면에 관심을 기울여 참선을 중시하였다. 의천은 '교'(敎)와 '선'(禪)의 일치를 주장하였으나 교의 입장에서 선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눌은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여 선과 교가 본래부터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주장하여 원융회통의 사상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인간은 본래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따라서 자기와 타인 그리고 자기와 주변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그 의미를 개략적으로 밝힌 풍류와 원융회통이라는 난해한 개념을 한국민족정신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풍류는 우리나라에 유불선 삼교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영성'(民族的 靈性), 즉 '민족의 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유동식, 1997, p.61). 또 원융회통은 우리나라에서 외래 종교인 불교

등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그것을 선진 사상이나 종교로 받아들 이면서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토착신앙과의 조화를 가능케 한 민족적 융화 력(融和力)과 포용력(包容力)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풍류의 정신이 있었기에 신명이 났다면 무서운 폭발력을 발휘하여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의 경우처럼 거의 성공적 개최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 던 것을 가능케 한 놀라운 저력을 보였고,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지역무도인 태 권도를 세계무대에 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태권도를 토착적인 수박이 나 택견에 머무르지 않고 외래적인 가라테(空手·唐手)와 서구의 스포츠 기법을 포용하 여 하나의 국제 수준의 무도 종목으로 발전시킨 것은 바로 원융회통의 민족 정신이 없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끝으로, 풍류와 원융회통의 정신을 태권도 수련의 청소년 인성교육목표로서 내세우 는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풍류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민족의 마음과 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민 족적 영성이요, 민족의 열인데도 현재의 태권도 수련과정이나 행사 등에는 그것이 발휘 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범과 덕목위주의 무미건조 한 인성교육을 표방하거나 점수 위주의 시험식 수련일변도로 흐르기보다는 ‘놀이’와 ‘신 들림’의 특징을 지닌 풍류의 정신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융회통은 우리 민족의 넓은 융화력과 포용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태권 도인으로서 넓은 마음과 타인(타무도인이나 외국인)과 만나거나 같이 수련할 때 항상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태권도의 생존과 비교우위의 유지를 위해 세계의 모든 무도와 격투기의 장점을 받아들 여 잡종성(hybridity)의 ‘퓨전(fusion) 태권도’ 개발에 진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2. 의리와 경로효친

의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뜻하기도 하고 친구나 동료간에 신의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뜻하기도 한다. 본래의 뜻은 14세기 말에 개국한 한국의 조선왕조부터 본격적으로 숭상된 유교적 삶을 설명하는 기본 구조로서 삶의 방향인 ‘의’(義)와 삶의 근거가 되는 ‘이’(理)가 결합된 것이다. 보통 의리를 설명할 때는 ‘이’가 먼저 지적되고 ‘의’가 나중에 다루어진다. ‘이’는 마땅히 그러해야 할 본질적 모습을 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당연(所當然)이라고 할 수 있고, ‘의’는 실천해야 할 구체적 규범 을 말하기 때문에 소당위(所當爲)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리는 당연으로서의 이치

와 당위로서의 실천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최봉영, 1997, pp240~241).

의리에서 ‘이’는 당연한 것을 말한다고 한바와 같이 ‘이’는 궁리(窮理)의 대상이 되어 실천에 앞서 당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가 부족한 것은 무리(無理), 비리(非理), 부조리(不條理)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된다. 반면에 구체적 실천을 지적하는 ‘의’(義)의 경우에는 구체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의가 아닌 것은 무의가 아니라 ‘불의’(不義)가 되며, 행위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의리를 평소에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하였다. 선비들 중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16세기경 조선왕조의 이이(李珣)인데 그에게는 의리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학문적 능력, 역사를 통찰하는 장기적 안목, 폐단을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맑고 깨끗한 모범적 삶이 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의리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정리하면, 의리는 사람들에게 이(理)로서 진리를 뜻하고 의(義)로서 정의를 뜻하고, 절(節)로서 지조를 뜻하고, 의(宜)로서 마땅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의리와 함께 지적하려는 또 다른 민족정신인 ‘경로효친’(敬老孝親)은 효친과 경로가 합쳐진 말로 제 아버이를 떠받들어 잘 섬기는 마음이고 이러한 효친의 마음을 이웃 노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로와 효친의 순서가 바뀌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효(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한 유교 경전은 「효경」인데 이 경전은 1,2세기경 한국의 고대 삼국시대로부터 중국의 고전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수과목이 되었다. 「효경」에 다음과 같은 공자(孔子)의 가르침이 포함되었다. 즉 “하늘과 땅의 본바탕을 지니고 태어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효가 가장 큰 것이다. 몸이며 머리터럭, 살갓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다치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슬픔으로 섬기는 것이 아버지 섬김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는 효에 대해 “사람의 자식들은 생명혈육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태어나 숨과 기맥이 서로 통하니, 그 몸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요 부모가 주신 것이다. 어찌 감히 스스로 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효를 극진히 하지 않으리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경로(敬老)에 대해서는 어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한 유교경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바 있다. 즉 어른을 곁에서 모실 때는 반드시 손을 가슴에 올려 마주잡고, 무엇을 물으시면 반드시 성실하게 대답할 것이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모름지기 소리를 낮추고 말을 자상하게 천천히 할 것이요, 높은 소리로 시끄럽게 다투고 근거도 없는 소리를 되는 데로 지껄이면서 히히덕거려서는 안 된다. 부형이나 어른의

말씀이 계시면 고개를 숙여 잘 들을 것이요, 망령되게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이기석 역해, 동몽수지, 1982).

지금까지 그 의미를 밝힌 의리와 경로효친을 한국민족정신의 핵심 개념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앞에서 한국민족정신의 또 다른 요소로 지적했던 풍류가 고조선 사회 및 무교(巫敎)를, 원융회통이 삼국·고려사회 및 불교를 각각 대표하는 민족정신으로 지적되었다고 한다면, 의리와 경로효친은 조선사회 및 유교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리와 경로효친은 근대이후에 민족정신을 대변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도 대인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격으로 추구되고 있는 민족정신으로 그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의리를 중시하는 나라로 주변국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고 따라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워 졌다. 당시의 선진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도 도덕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았다. 특히 태권도의 세계화에 앞장서서 세계 각 나라로 진출한 태권도사범들이 성공한 배경에는 그들의 무도인으로서의 능력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의리의 사나이'로 불리워 질 수 있는 그들의 높은 인격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경로효친도 의리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리게 하는 요소이다. 서양의 경우 가족제도가 부모에 대한 효도의 결여로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아직도 한국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가 제일의 덕목으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어 결속력 있는 가족제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자에 대한 존경도 전보다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버스나 전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를 하는 등의 미덕을 보이고 있고 태권도인들이 숭선수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리와 경로효친을 태권도의 인성교육목표로서 내세우는 이유를 밝히면, 의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생각이나 말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권도수련의 기대되는 성과로서 의리를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경로효친의 경우에는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사범으로부터 지도도 받지만 실제로는 선배나 상급자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지도 받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승과 제자사이에 존경과 복종이 행동이념화 되기 쉽고 따라서 부모에 대한 효행도 태권도인의 행동방침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III. 세계 보편 윤리

세계태권도정신의 또 다른 핵심요소를 세계보편윤리(global universal ethics)에서 찾으려한다. 이것은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이 세계보편윤리의 선양(宣揚)에 앞장서고, 세계

보편윤리를 태권도 수련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좌우명(motto)으로 삼기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세계윤리로는 세계종교 역사상 처음으로 1993년 8, 9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종교 의회'(Parliament the of World's Religions)에서 전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6500명의 지도자들이 협의 후에 '세계윤리선언'(Declaration Toward a Global Ethics)으로 발표한 내용(Hans Küng & Karl-Josef kuschel, 1993)과 1999년에 유네스코에서 '21세기 윤리의 공동틀'(A Common Framework for the Ethic of the 21st Century)로 발표한 것(UNESCO, 1999)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계보편윤리로 선정한 것은 '진실성'(眞實性, truthfulness)과 '양성평등'(兩性平等, gender equality) 그리고 '자연보존'(自然保存, preservation of nature)과 '인간성취'(人間成就 human fulfillment)이다.

1. 진실성과 양성평등

진실성은 인류 고대로부터 내려온 종교와 윤리적 전통 속에 가장 중요시되는 지침이다. 거짓말하지 말라거나 진실되게 언행을 하라는 가르침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거짓과 사기가 횡행하는 것을 보아왔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성공을 위해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대중매체는 정확한 보도 대신 이념적 선전을 하는 경우가 잦고 진실에 대해 충실하기보다 상업적 이익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학자나 연구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심되는 정치나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근본적인 윤리적 가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종교를 가치가 없는 것으로 멸시하면서 타종교에 대한 존경과 이해보다는 광신과 불관용의 자세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가지도자, 정치인, 그리고 정당들은 타인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조작하거나, 매수되거나,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자비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믿음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부정직하거나 기회주의적이기보다는 성실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념적이거나 과당적으로 위장된 진리를 펼치기보다는 진실과 부패되지 않는 성실성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양성평등도 고대로부터의 종교 윤리적 전통에 들어있는 것으로 간음과 같은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지 말라, 남녀 상호존중하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한성(性)이 다른 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격하시키거나 성적 종속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수준의 가부장제도, 한 성의 다른 성에 대한 압박, 특히 여성에 대한 착취,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강제적 매음 등이 자행되고 있다. 또 매우 빈번하게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 특히 여아들까지 생존의 수단으로 매음에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타파하고 양성평등을 내세우는 페미니스트 윤리(Feminist Ethics)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18, 19세기에 등장하였으나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페미니스트 윤리의 대표적 주장자인 길리간(Carol Gilligan)은 여성의 도덕성발달은 남성과 다르다고 하였다. 남성들이 공정이나 평등과 같은 정의의 도덕성에 밀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은 손해로부터 보호받는 '보살핌'(care)의 도덕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윤리에서는 남성과 직결되는 독립성·자율성·지성·의지·신중함·위계·지배 등의 가치와 함께 상호의논·공동체·연결·공유·감성·본성·육체·신뢰·기쁨·평화와 같은 여성적인 것들도 동등하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 Jaggar, 1992, p.365).

지금까지 그 의미를 밝힌 진실성과 양성평등을 세계보편윤리로 내세우는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세계윤리선언'에서 '취소할 수 없는 지시'(irrevocable directives)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진실성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인류 공통의 가치이며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정보화와 그에 따른 과학지상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등의 만연으로 그러한 가치관 등이 현실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진실성과 양성평등의 정신을 태권도 수련을 통한 인성교육 목표로써 내세우는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실성의 경우 진실한 말이나 행동은 실제 생활에서 신념이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자기의 진실을 내보이고 싶어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적인 타협이나 적응보다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강한 체력과 그에 따른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이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기대되는 성과이며 목표가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제일 뚜렷한 것은 양성평등이 태권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하나의 무도인 동시에 격투기로서 그 동작이 격렬하고 속도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적 특성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예(技藝)의 면이 중시되고 부드러움과 미(美)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 여성적 특성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한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민족정신으로 제일 먼저 지적한 풍

류정신과 그것을 구현하는 풍류도가 남성적인 무사도와는 대조적인 심미적이며 여성적인 '영성'(靈性)이라고 한다면, 태권도의 발전과 양성평등의 정신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자연보존과 인간성취

자연보존은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환경 운동의 기본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 기본 정신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자연과피는 인간이 인과관계와 기계적 법칙에 따라 자연을 통제하여 지구상에서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소원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간들이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연은 양적인 면에서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연의 안정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법을 인간은 배워야 한다. 인간의 경제적, 물질적 욕망은 만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자연의 한계에 적응시키고 자연의 재생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경제적, 기술적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제개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미래의 세대가 생명과 건강한 환경을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인간은 직접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단기적 사고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장기적 사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이 지구를 자신의 집이요, 모태(母胎)요, 조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dgar Morin, 1993). 지구 위의 식물, 동물, 인간들의 죽음과 삶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곳 지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간성취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고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모든 개인은 개성 면에서 독특하다. 그리고 개인은 공동선의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전달되는 살아있는 전통 속에 파묻혀 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공간에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다. 감정이 앞서거나 우세하면 선택의 가능성이나 결과에 대해 분명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해친다. 그러나 이성적인 면만을 강조하면 한 인간을 차갑고 계산적으로 만들기 쉽다. 따라서 사고와 느낌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고 서로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자기만족의 삶은 궁극적으로 천박하고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다. 반대로 고차원적인 목적만을 지향하는 삶은 환상이나 삶의 부정으로 흔히 빠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더 깊은 구조를 생각하면서 선(善)에 연결된 도덕적 직관을 개발하여야만 한다. 인간은 마음과 몸을 갖고 있고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성취를 둘 다 바라지만 가급적이면 정신적인 성취를 중시해야 한다. 즉 물질적인 외형적 만족을 마음과 정신의 내적 만족으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성취는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정을 조화롭게 지닌 상태에서 정신적인 내적 만족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의미를 밝힌 자연보존과 인간성취를 세계보편윤리로 내세우는 근거는 물론 앞에서 지적한 ‘21세기 윤리의 공통틀’에서 대표적 윤리 영역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 이유는 자연보존과 인간성취의 세계보편윤리의 정신이 바로 앞에서 지적했던 한국민족정신의 풍류와 원융회통의 정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자연보존은 자연을 즐기고 심신을 수련했던 한국 고대의 무사들의 좌우명인 풍류정신과 통한다고 생각되고 인간성취는 한국 삼국 시대와 고려시대에 ‘하나의 마음’(一心)으로 귀일하기 위하여 노력한 승려들의 원융회통의 정신과 통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자연보존과 인간성취를 태권도 수련을 통한 인성교육 목표로 내세우는 이유를 밝혀 보기로 하자.

먼저, 자연보존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태권도의 원초적 정신이 자연을 통해 신과 만나는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권도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수천년 전에 등장한 태권도인의 시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무사들이 풍류정신에 따라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자연을 즐기면서 도의와 무술을 연마한 것을 보면 자연에 대한 단순한 보존이 아닌 숭배가 태권도정신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하늘을 절대자로 숭배했던 한국인 조상들의 경천사상(敬天思想)이 근대에 이르러 동학(東學)이라는 민중 종교로까지 이어졌고, 이 종교의 근본적 교리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조화였음을 생각하면 자연은 태권도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의지처라고 할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인간성취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추구하여야 할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목적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태권도의 수련이 단순한 신체적 단련이나 호신술의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인들의 인격 교육(character education)을 위한 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태권도 수련의 궁극적 목표가 세계태권도공동체를 결성하여 세계적인 이상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성취가 태권도인들의 일상적인 좌우명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또 태권도 자체가 투기(鬪技)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또 태권도가 지향하는 이상사회가 폭력 없고 평화로운 지구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세계윤리는 세계 태권도인들이 항상 간직하고 지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초급의 태권도 입문자로부터 상급의 고단자로 진급해 나아가는 과정은 특히 허리에 두르는 도복의 띠 색깔이 변해가면서 자신의 태권도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인간성취를 실감 있게 느끼는 표본이라고 하겠다. 한때는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무기력했던 청소년들이 태권도수련을 통하여 자신감 있고, 능동적인 청소년들로 바뀌는 것 자체를 정신교육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IV. 공통무도정신

세계태권도정신의 세 번째의 마지막 요소를 한국과 세계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무도정신에서 찾으려 한다. 무도정신(martial spirit)은 ‘무’(武)를 숭상하는 정신으로서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대국가인 신라에서 7세기에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세속오계(世俗五戒)에 포함된 ‘임전무퇴’(臨戰無退)와 ‘살생유택’(殺生有擇) 그리고 이미 태권도의 정신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내’(忍耐)와 ‘극기’(克己)를 선정하여 순서적으로 다룬다.

1. 임전무퇴와 살생유택

임전무퇴는 앞에서 지적한 세속오계의 5개 표어 중의 하나이다. 그 뜻은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말라는 것인데 세속오계가 제시될 당시 삼국시대에 신라는 물론 백제, 고구려에서도 무사들에게 요청되는 공통의 무도정신이였다. 임전무퇴의 정신을 지킨 대표적 사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의 예를 들면 7세기 경 일생을 통한 수신계를 청하기 위하여 원광법사를 방문했고 세속오계를 받아냈던 귀산과 취향이라는 두 청년이 전쟁에 출전하여 적군의 기습을 받아 아군이 위기에 몰릴 때 분투하다가 전사한 것이다. 그들은 “일찍이 법사께서 싸움에 임해서 물러서지 말라 하였는데 어찌 감히 쫓겨 달아날 수 있느냐”하면서 창을 휘두르고 돌진하여 적을 치니 전군이 분투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나 온몸에 상처를 입어 장렬하게 죽음을 맞은 것이다.

백제의 예는 7세기 중엽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던 마지막 전쟁에서 황산벌로 들어오는 신라의 5만 대군을 맞아 싸운 백제의 계백 장군과 5천여 명 결사대의 항전을 들 수 있다. 계백 장군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전 가족을 스스로 목베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출전했던 만큼 백제의 결사대는 생사를 초월하여 싸울 수 있었고 4번이나 연승하였으나 나중에는 증과부적으로 전멸하였다.

고구려의 예는 6세기경 신라 진흥왕 때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하여 고구려 평강왕의 사위로 용맹을 날리던 온달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계림현·죽령이북의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서하고 전쟁터로 나간 것이다. 그 후 전쟁에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죽어서 돌아왔다.

또 다른 무도정신인 살생유택도 세속오계의 5대 표어 중 하나이다. 그 뜻은 생물을 죽이되 때를 가려서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미는 원광법사를 방문했던 귀산 등의 질문에 원광법사가 답한 것이 있다.

첫째는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의 육재일(六齋日)은 사천왕이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날이므로 생물을 죽여서는 안되고, 또 동물의 번식기인 봄과 여름에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죽일 수 있는 생물을 택하되 말·소·닭·개 등의 가축은 죽여서는 안 되고, 곤충류 등의 미물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광법사의 주장은 그가 살생을 십악업(十惡業)으로 삼고 있는 불교의 승려임을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살생 자체를 허용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세속(世俗)의 계율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근신하는 날로 살아야 할 6재일이나 유교의 경전에서 봄에는 번식기이므로 사냥과 낚시질을 금하고 미물은 물론 가축도 무고하게 살해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그 의미를 밝힌 임진무퇴와 살생유택을 세계보편윤리로 내세우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1천여 년이 훨씬 넘게 오래된 한국 고대 삼국시대의 계율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 계율로 적합해서는 아니다. 따라서 임진무퇴의 의미 그대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는 뜻이기보다는 수없이 꺾어도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이 왔을 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생유택의 진정한 의미는 그와 같은 살생의 조건이나 단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중시사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개념에서 “넓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 생명의 중시와 함께 다른 생명체도 존중하는 것이므로 현대사회의 환경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끝으로, 임진무퇴와 살생유택의 정신을 태권도 수련의 인성교육 목표로 내세우는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진무퇴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가장 기대되는 것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강인한 정신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 세계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정신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태권도 체육관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소위 ‘배짱’이나 ‘자신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의 습득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지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480개 초·중·고교생 1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1년도 학생 신체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들의 키나 몸무게 등 체격은 전보다 커졌지만 건강 상태나 체력은 전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했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이 심약해진 것으로 짐작되어 태권도와 같은 무도 수련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름으로, 살생유택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생명중시풍조를 태권도 수련에서 고양시키려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주변에는 살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폭력과 살인을 미화하는 영화들이나 온갖 무기로 사람을 얼마나 죽이나로 승부가 나는 인터넷 게임 등이 그 예다. 이러한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살생유택의 근본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수련 중에 무도의 근본 이념인 ‘부동심’(不動心), ‘무심체’(無心體)를 구현하여 마음 속의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를 통하여 인간 생존의 의미와 활력을 찾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듯 하다(양진방, 2000, p.56).

2. 인내와 극기

인내는 앞의 본 연구의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외의 태권도 체육관에서 이미 태권도 정신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시에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기초가 되는 무도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전 세계 무술 유파들이 1158개나 되고 한국에만도 26개 종목에 43개의 유파가 된다고 밝혀진 바 있지만(이병익·김병천, 2000, p.96), 어느 종목, 어느 유파를 불문하고 인내없이 수련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 예를 들면, 미국에서 1998년에 출간된 무도(martial arts)에 관한 한 대표적 안내서에 10개의 무도 종목, 즉 태권도·가라테·합기도·유술(Ju-jitsu)·유도·쿵후·태극권·검도·거합도(居合道, Iaido)·심도류(心道流)가 제시되었으며, 각 종목의 특기에 해당되는 기술이 소개되었고 장점 또한 상세하게 해설되었다. 그 외에도 그러한 기술 습득과정의 어려움과 유의점이 지적되었으며, 동시에 호신술(self-defence technique) 사용 시에 인내와 과감성과 같은 정신 자세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설이 있었다(Fay Goodman, 1998).

극기 또한 앞의 인내와 마찬가지로 국내외의 태권도 체육관에서 이미 태권도정신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극기는 자기의 욕망, 충동, 감정 따위를 의지의 힘으로 억눌러 이기는 상태를 말하는데, 본래의 뜻은 공자(孔子)가 「논어」(論語)에서 ‘극기복례’(克己復禮)가 바로 ‘인’(仁)이다라고 갈파한데서 나온 것이다. 공자는 평소애 수신(修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중의 하나로 “내심으로 수시로 조정하고 검토하고 수리하는 것이 극기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 유가(儒家)의 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극기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요청되었다.

첫째, 자기에게서 구함[求諸己]이다. 자기의 자립을 구하고 남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홀로 있을 때 삼가함[慎獨]이다. 집단 사회 속에서 자기 분수를 지키고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셋째, 자기성찰[自己省察]이다. 과거의 언행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성하여 잘못이 있으면 이를 고치고 없으면 계속 노력한다.

넷째, 자기반성[自反]이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검토해서 그 허물이 자기 자신에 있음을 밝히고 다른 사람에게 씌우지 않는다.

다섯째, 스스로 꾸짖음[自責]이다. 자기성찰과 반성 이후 잘못을 발견하고 실수가 있었으면 엄격히 자기를 꾸짖어야 한다.

여섯째, 잘못을 고침이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과실을 찾아내는 것이며 오직 회개하여야 비로소 다시 잘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일곱째, 스스로 힘씀[自勉]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만 못하면 반드시 온힘을 기울여 이기도록 하여야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진보가 있다.

여덟째, 스스로 힘을 기른다[自強]이다. 인간의 지혜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체력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나 오로지 의연한 힘이 있어야 그 결함을 보충하고 없앨 수 있다.

아홉째, 스스로 믿음[自信]이다. 인간이 이미 자기 완성과 만물을 완성시키는 큰 뜻을 세웠으니 때때로 자기성찰, 자기반성, 자기책임, 자기근면, 또 잘못을 고치는데 용감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

열째, 스스로 얻음[自得]이다. 스스로 얻는 자는 그 즐거움을 얻는 것이니 쾌락은 물질적 향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심의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다(진입부, 1986, pp254~261).

지금까지 그 의미를 밝힌 인내와 극기를 세계보편윤리로 내세우는 이유는 인내와 극기가 둘 다 국내와 전 세계에서 태권도정신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내의 경우에는 태권도를 포함하는 모든 무도 수련에서 필수 불가결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고, 극기의 경우에는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인생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仁)에 도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극기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극기의 정신을 태권도수련의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로서 내세우는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인내를 먼저 생활화하지 않고는 태권도라는 무도의 수련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초보적인 동작이 아니라 유단자로서의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반복과 집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권도인에게 요청되는 인내는 태권도 수련과정에서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태권도인들의 수련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혹을 참아내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 폭력, 마약, 음주, 십대의 성행위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인내자체는 가정의 부모나 학교의 교사보다는 태권도 체육관의 사범으로부터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다음으로, 극기의 경우도 앞에서 지적한 인내처럼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극기와 인내는 거의 같은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인내는 과정이고 극기는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 계속되는 인내를 통하여 극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기는 인격적 성숙을 뜻하는 것으로 극기가 제대로 될 경우 한 사람의 인격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당면하는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초월’(transcending self)의 경지에 이르러 개인적 명상, 삶의 존중, 완전하고 막히지 않는 정체성의 확립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태권도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태권도정신의 성격과 구성요소를 밝히고, 각 요소를 선정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며, 각 요소의 청소년 인성교육 목표로서의 정당성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상기한 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계태권도정신을 3개 요소로 구분한 후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순서적으로 밝혔다.

첫째, 기나긴 역사를 통하여 주변 강대 국가나 민족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침입 속에서도 생존과 발전을 이어 온 우리 한 민족의 끈질긴 민족정신에서 세계태권도정신의 기초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고대 신교(神敎)의 특성을 지닌 무교(巫敎)로부터 추출한 ‘풍류’와 외래 불교를 한국의 것으로 발전 정착시킨 불교로부터 추출한 ‘원융회통’을 선정하였다. 동시에 한국 근세에 들어와 조선왕조에서 숭상한 유교적 삶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신으로, 또 현대에서도 바람직한 행동규범으로 추구하는 ‘의리’와 ‘경로효친’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였다.

세계태권도정신을 탐색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첫째 번으로 한국의 민족정신(ethos)을 그 기본요소로 정한 이유는 물론 태권도라는 무도가 한국이라는 지역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태권도를 한국이라는 특수지역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할 때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는 한 외국학자가 지적했듯이(Geert Hofstede, 1995) 그에 속한 ‘심적 소프트웨어’(software of the mind)에 해당되는 생각, 느낌,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 공통의 태권도정신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더구나 세계태권도정신을 단순한 무도적인 정신만이 아니라 일상 행위의 바탕이 되는 일반적 행동 이념이나 가치규범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보편타당하고 미래 지향적인 세계윤리에서 태권도정신을 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세계 종교 의회(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에서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합의하여 발표한 ‘세계윤리선언’에서 지목한 ‘진실성’과 ‘양성평등’을 선정하였다. 동시에 유네스코에서 ‘21세기 윤리의 공통틀’로 발표한 ‘자연보존’과 ‘인간성취’를 추가적인 정신요소로 선정하였다.

세계태권도정신을 탐색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세계윤리를 그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별도의 세계정신을 밝힌 타당한 안(案)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세계윤리 외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다행히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기구들이 비교적 최근에 세계윤리에 대하여 광범한 합의를 도출하여 제시한 것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이나 뮐러(Harald Müller)의 「**문명공존론**」(Das Zusammenleben der Kulture)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 세계적 상황에서 산출물로 등장한 세계윤리가 어느 정도의 문명적 공평성에 관련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셋째, 세계태권도정신은 하나의 무도정신이므로 한국의 대표적인 무도정신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무도정신을 결합한 공통무도정신을 만들어 세계태권도정신의 한 요소를 이루게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전형적인 무도정신의 사례로는 고대국가 신라의 화랑도의 ‘세속오계’에서 뽑아낸 ‘입전무퇴’와 ‘살생유택’ 그리고 세계적인 무도정신의 사례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태권도정신인 ‘인내’와 ‘극기’를 선정하였다.

세계태권도정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공통무도정신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태권도 자체가 하나의 무도로서 모든 공통되는 무도정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천여 년이 넘는 오래된 고대사회에서 설정한 무도정신 자체가 오늘날의 태권도정신으로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고대 무사들이 보여주었던 백절불굴의 무도정신과 결사보국의 자세는 오늘날에도 우리들 피 속에서 숨쉬고 있어 세계태권도정신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자연

스럽게 수용되고 있는 무도정신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내용과 정당성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설정된 세계태권도정신의 세 개의 구성요소가 청소년 인성교육 목표로서 지닌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민족정신, 즉 <풍류·원융회통·의리·경로효친>은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윤리사상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세계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의 근본이념을 이해하며 자신이 걸어온 삶의 방식이나 행동 유형에 대한 반성이 가능케 될 것이고 특히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한 지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보편윤리, 즉 <진실성·양성평등·자연보존·인간성취>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지도자들이 앞으로 21세기의 세계인들이 바람직하게 살아갈 윤리적 방향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보여준 것이므로 세계태권도인들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외국의 태권도인들과 공존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지침과 국제감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통무도정신, 즉 <임전무퇴·살생유택·인내·극기>는 한국민족의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무도정신과 전 세계가 지향하는 공통적인 무도정신의 기초를 보여준 것이므로, 세계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수련과정이나 일상행동에서 무도인답게 생각하고 무도인답게 행동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내려진 결론에 비추어 앞으로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 단체가 중심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세계태권도 정신이나 세계태권도강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 종교 회의에서 발표한 '세계윤리선언'이나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21세기 윤리의 공통틀'을 결정하는 절차나 과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태권도 체육관(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반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제를 담당할 학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대표적인 청소년 사회체육기관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도덕과 교육과정」.
- 국기원(1993), 「태권도 교본」.
- 김병운(2001), “태권도정신”, 국제태권도신문, 2001년 2월 15일자.
- 서울대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1997), 「제7차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1997년도 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답신보고서)
- 양진방(2000), “무도이론의 기초개념으로서의 강유론”, 대한무도학회, 「대한무도학회지」 제 2권 제 1호.
- 유동식(1997),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기석 역해(1982), 「동몽수지」, 서울 : 홍신문화사.
- 이병익·김병천(2000), “우리나라 무도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 「대한무도학회지」 제2권 제 1호.
- 이진수(1997), “무도적 차원에서 본 태권도”,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사관 정립과 태권도 정신 도출을 위한 세미나」.
- 정세구(1997), “초·중등학교 인성교육 실천 방향”, 「조화로운 인간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_____ (2001), “21세기 태권도의 세계화전략”, 세계태권도연맹, 제 5회 세계태권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
- 진입부(1986), 「중국 철학의 인간학적 이해」, 서울 : 인지사.
- 최봉영(1997), 「조선시대 유교문화」, 서울 : 사계출판사.
- Goodman, Fay(1998), 「Martial Arts」, N. Y. : Lorenz Books.
- Hofstede, Geert(1995), 「Cultures and Organization : Software of the Mind」를 번역한 차재호·나은영,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 학지사.
- Jaggar, A.(1992), “Feminist Ethics”, L. Becker & C. Becker(eds), Encyclopedia of Ethics.(N. Y. : Garland Press).
- Küng, Hans & kuschel, Karl-Josef(1993), 「A Global Ethics」, London : SCM Press Ltd.
- Lawler, Jennifer(1999), 「The Secrets of Taekwondo」, Chicago : Masters Press.
- Morin, Edgar(1993), 「Terre-patrie」를 번역한 이재형, 「지구는 우리의 조국」, 서울 : 문예출판사.
- UNESCO(1999), 「A Common Framework for the Ethics of the 21st Century」.

<Abstract>

A Study of Global Taekwondo Spirit
as an Objective of Character Education for Youths

Chung, S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tentative plan of global taekwondo spirit that taekwondo youths in Korea should follow as behaviors norms and that our country Korea, the suzerain state of taekwondo, should announce publicly toward the taekwondo athletes all over the world.

The formula on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lobal taekwondo spirit is as follows : <Global Taekwondo Spirit = Korean National Spirit + Global Universal Ethics + Common Martial Spirit>.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most basic element of global taekwondo spirit from Korean national spirit which has enabled the pers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people, while the second stage of it is to cultivate the supplementary element of global taekwondo spirit from global universal ethics. The third stag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element of global taekwondo spirit from common martial spirits of Korea and the world.

As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such elements of Korean National Spirits as '*poongryu*'(elegant and idyllic life), '*wonyung-hoetong*'(harmonious life), 'justice', and 'respect for filial duty and the elderly', plus such elements of global universal ethics as 'truthfulness', 'gender equality', 'preservation of nature', and 'human fulfillment'. The third element of global taekwondo spirit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common martial spirits includes '*imchon-mootoe*'(never retreat from the battle field), '*salsang-yootak*'(discriminate about the taking of life), 'perseverance', and 'self-control'.

*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